

# 눈꽃세상으로 '흔저옵서예'

〈어서오세요〉



제주 '한라산 1100고지'

한라산 서쪽 해발 1100m에 위치한 1100고지.

1100도로 정점에 자리하고 있다.  
1100도로는 한라산을 사이에 두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중문동을 연결하는 도로이다.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까지 국도였다. 우리나라 국도 가운데 해발 높이가 가장 높다.  
계절별로 한라산의 다채로운 풍경을 담아내 빼어난 절경이 펼쳐진다. 마치 신이 선물한 뛰어난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해가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밤하늘 별들을 선명하게 관측하는 장소로도 적합하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빛 공해가 적기 때문이다. 셀 수 없이 반짝거리는 영롱한 별을 바라보며 별 해는 밤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겨울이면 눈 덮인 한라산의 하얀색, 신기한 남국의 정취에 빠져들게 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중문동을 있는 1100도로는 1100고지를 정점으로 설경을 감상하기에 좋다.

습지

## 한라산 고원에 12만5511m<sup>2</sup> 습지 희귀·멸종위기 동식물 '생태 보고'

1100고지에는 습지보호구역이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아준다. 나무 데크로 산책로가 조성돼 걸으면서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다. 다양한 습지의 모습과 생태를 살피고, 사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좋다.

1100고지 습지는 2009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 한라산 고원지대에 형성된 대표적인 산지습지로 면적은 12만5511m<sup>2</sup>이다.

특수성이 높은 한라산의 지질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특이한 습지로 평가되고 있다. 현무암 특성으로 담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담수 기간이 길어 낮은 곳에 고여 있는 물은 야생동물의 중요한 식수원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는 한라산 고유 식물인 한라물부추를 비롯해 지리산오갈피가 분포하고 있다.

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매, 2급인 말똥가리와 조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황조롱이, 두견, 제주도 특산종인 제주도룡뇽, 한라북방밀들 이메뚜기, 제주밀들이 등이 서식하고 있다.

동발과의 식충식물인 자주땅귀개 자생지로도 알려져 있는데 분포면적은 약 150m<sup>2</sup> 규모이다.

한라눈꽃버스 운행

## 3월 2일까지 80일간 운행 자가용 대신 안전 이용 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 설경을 찾는 관광객과 제주도민을 위해 한라눈꽃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겨울철에 등장하는 이 버스는 오는 3월 2일까지 80일간 1100번·1100-1번으로 찾아가고 있다.

1100번 노선은 제주버스터미널에서 한라병원·어리목~1100고지~영실지소까지 운행한다. 1100-1번 노선은 서귀포등기소에서 서귀포터미널~영실지소~1100고지~어리목까지이다.

한라눈꽃버스와는 별개로 정규 노선인 240번 버스도 제주버스터미널에서 1100고지를 경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구간까지 하루 18회 매일 운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겨울철 안전사고와 주차 공간 등을 고려해 자가용 대

신 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제주일보=김재범 기자

/사진 제주일보 DB

제주시와 서귀포시 중문동을 있는 1100도로는 1100고지를 정점으로 설경을 감상하기에 좋다.